

Daily Auto Check

2020.11.19(Thu)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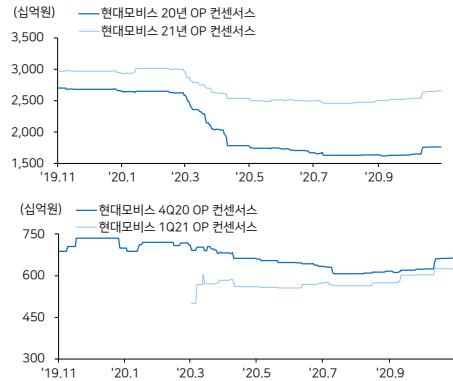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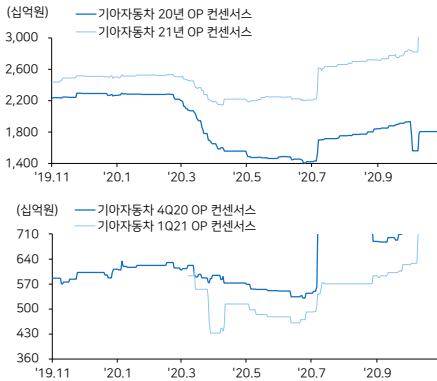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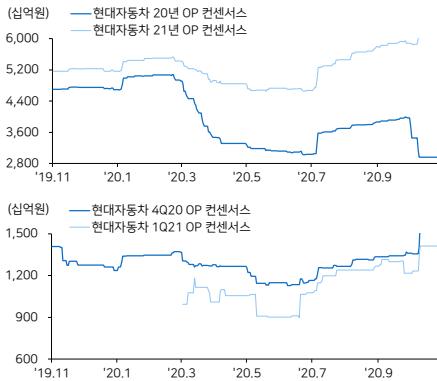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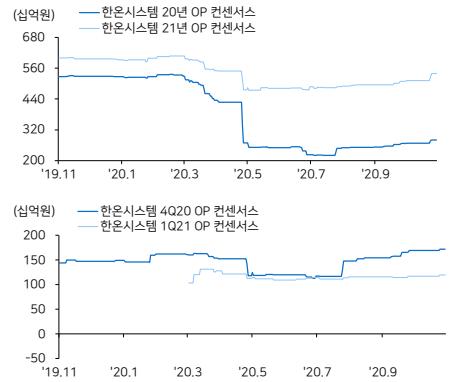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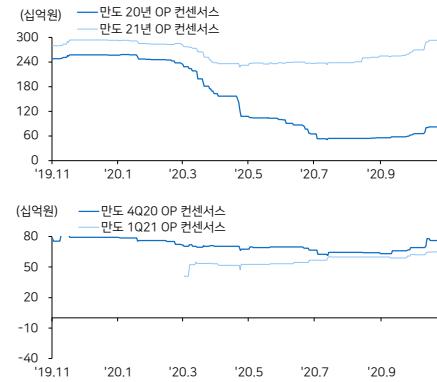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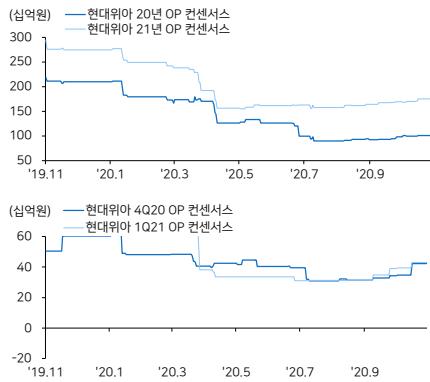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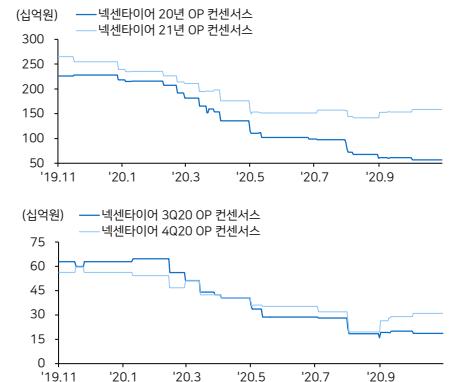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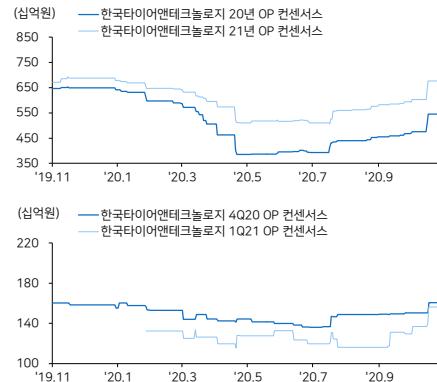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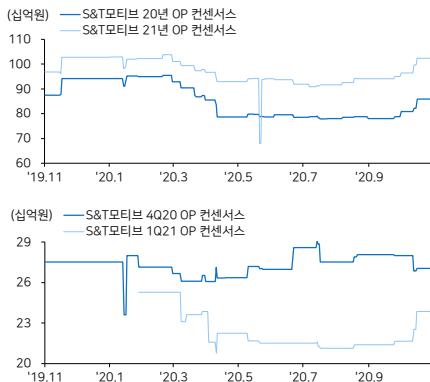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美서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그룹과 엔터프라이즈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테스트 주행을 들어감. 이번 주행에선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 될 예정.
<https://bit.ly/3fcjQE>

기아차 10월 유럽 판매량 늘어, 현대차는 판매 줄고 점유율도 낮아져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차 기아차가 10월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었지만 점유율은 유지. 18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10월 유럽(유럽연합+유럽자유무역구+영국)에서 자동차를 8만1128대 판매. 2019년 10월보다 7.2% 감소.
<https://bit.ly/2USgnSI>

전기차 충전서 카세이링까지… 주유소의 진화 (세계일보)

주유소가 단순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장소가 아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음. GS칼텍스는 사랑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생활편의시설까지 결합한 미래형 주유소를 처음 선보이면서 별도 브랜드로 18일 문정.
<https://bit.ly/3lOo2g8>

유럽 자동차판매 다시 감소…올들어 27%↓ (뉴스1)

유럽 자동차 판매시장이 9월 한 달 짊간 호조를 보이다가 10월 코로나 19 재확산과 사회경제 제한 재개로 다시 주저앉았다고 18일 유럽자동차제조협회가 밝힐. 10월 한 달 동안 95만3616대의 신차가 등록됨.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된 규모.
<https://bit.ly/2HeJADH>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차 내수 10만대 열었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량이 처음으로 연 10만대를 돌파. 친환경차로 자동차 업계의 폐라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의 중간 형태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
<https://bit.ly/38UkeGx>

"화재로 증가가속 속해 막심"…코나 소유주 170여명, 현대차에 집단 소송 (조선비즈)

수차례 발생한 화재로 리콜된 현대자동차코나일렉트릭(EV) 소유주 17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18일 이들은 코나EV의 잇단 화재로 증고자 가격이 하락하는 등 차량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 배상을 요구.
<https://bit.ly/2IPkxaT>

독일,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자동차 산업개혁에 4조 투입 (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를 위해 새로 30억 유로(약 3조9천3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자동차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
<https://bit.ly/2IPkxaT>

"10년 내 전기차를 대세로"…테슬라 참여 미 로비단체 출범 (연합뉴스)

2030년까지 미국에 전기자동차 운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전기차 업계를 대변하는 대형 로비단체 출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등 28개 기업은 전기차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할 '배기기스 제로 운송 협회'를 결성.
<https://bit.ly/38UkVQ9>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